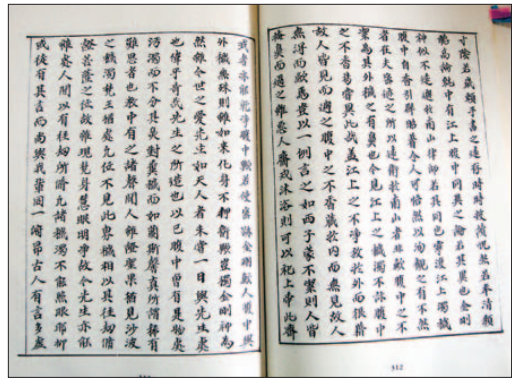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강상과 복중의 차이는

(江上) (腹中)



도판은 <일지암문집> <답쌍수도인>. 초의의 글이다.

세에도 개의치 않고, 더러운 인분을 앞에서도 (역겨운 냄새를) 마치 난초의 그윽한 향처럼 여기신다면 진실로 보기 드물어 생각하기 어려운 경지라 하겠습니까(夫遺迹之所以遠衛於南山者非 腹中之不潔 爲其外穢之有鼻也 今見江上之穢濁 不計腹中之不香 曷嘗異此哉 蓋江上之不淨 放於外而狼藉 故人皆見而避之 腹中之不香 藏於內而無見 故人不得而 焉 豈以一例言之 如西子蒙不潔則人皆掩鼻而過之 雖惡人齋戒沐浴則可以祀上帝 此齋戒者 亦能乾淨腹中歟 若使密迹金剛 人腹中與外穢無殊則 雖如來化身 不狎衛歟 豈獨金剛神爲然 雖今世之愛先生如天人者 未嘗一日與先生處也 偉乎哉 先生之所造也 以己腹中曾有是物 處汚濁而不分其臭 對糞穢而如蘭斯馨 眞所謂稀有難思者也)

<답쌍수도인>에서 초의 스님 견해 피력 "인분도 그윽한 난초 향처럼 여긴다면"

나의 예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서시가 오물을 (은 몸에) 뒤집어썼다면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지나갈 것이고, 비록 추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하여 깨끗하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목욕재계한 사람이 또 복중까지 깨끗이 할 수 있는가. 만약 자취를 감춘 금강산이 다른 사람에게 복중의 더러움을 드러내기 싫어하는데도 더러움이 밖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비록 여래의 화신이라도 가까이하지는 못할 것이니 어찌 다만 금강산만 그렇겠습니까. 설령 지금 선생을 마치 천인처럼 여기는 사람이더라도 하루도 (더러운 냄새가 나는)선생과 함께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하도다. 그대의 나아감 이어. 자신의 복중에 이미 이런 (더러운)물건이 있다고 하여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곳인데 (더러운) 냄

추사는 더러운 강상과 더러움이 가득한 복중이지만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냄새에 오물은 가득하면서 드러난 더러움만 기피하는 것이 옳은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초의는 "더러운 것이 밖으로 새어나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에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다. 서시와 같은 절세미인도 냄새나는 오물을 뒤집어썼다면 역겨운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가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만약 "더러운"냄새에도 개의치 않고, 더러운 인분을 앞에서도 (역겨운 냄새를) 마치 난초의 그윽한 향기로 여기신다면" 보기 드문 어려운 경지라는 것이다. 박종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추사는 "강상(江上: 오염된 강, 드러난 실체)과 복중(腹中:더러운 인분으로 가득 찬 배속, 드러나지 않은 실체)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금강산이 멀리 남산의 울사를 피할 것 같지는 않을 듯하고, 만약 같다면 어찌 나만 복중이 더럽고, 자신은 향기롭다고 하여 (중생심으로 가득한) 마음속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만 다르다고 꾸짖으십니까.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군요"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초의의 답은 <일지암문집> <답쌍수도인(答雙修道人)>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첫, 추사에게 지극한 예를 표하여 "멀리서 보내주신 편지를 곁에 두고 때때로 펴 보니 곧 청안을 뵈고 높은 말씀을 듣는 듯합니다(願手書之遠存 時時披讀 況然 若奉清聽聽高論)"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듯하다(以海觀之有不然者在)"는 자신의 견해는 단호하게 피력했다. <완당전집><여초의>3인의 왕복서신이기도 한 <답쌍수도인(答雙修道人)>은 초의의 유일한 답신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이번 호에 소개하고, 나머지는 다음 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금강산이)자취를 감추고 멀리서 남산의 울사를 아우하는 것은 불결한 복중을 꺼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밖으로 새어나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다. 지금 더럽고 탁한 강상을 보고 향기롭지 못한 복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대개 부정한 강상은 밖으로 흐드러져 이리저리 어지럽고 산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보고 피하는 것이고, 복중의 향기롭지 않은 것을 속에 감춰서 드러내지 않는 고로 사람들이 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하

"모든 인연에 간절하자" 나의 서원·나의 만행

제원 스님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의 원력을 세우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는 소년이 있었다. 판잣집에 사는 가난한 신희부부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버지가 경영하던 농기구공장에서 나오는 자투리 목재를 밧에 몰래 신희부에게 가져다주는가 하면 구두닦기 소년들의 나무 가방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다. 소년은 무력 무력 자라 청년이 되었고 한 사람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중 병당에 놓인 <초발심자경문>을 읽고 감동해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올해 25회 포교대상을 수상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제원 스님의 이야기다. 상대방에게도 이롭고 나에게도 이롭게 살고 출가를 결심했다는 스님은 20여년 복지사업에 매진해왔다.
1992년부터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일해 온 스님은 민간기업 후원으로 복지관을 건립,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문화, 저소득층의 빈곤지원을 생활안정 등 복지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아왔다. 특히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해외연수사업, 어린이집 운영 등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 사회포교 및 계층포교를 아우르는 원력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님은 당시 복지관 절반을 직접 설계하고 실무자들과 같이 복지관 건설현장에서 밤새 함께 일하며 건물을 세워나갔다. "회장님께서 복지관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궁금해 밤에 비서를 데리고 몰래 왔는데 밤늦게까지 인부들과 같이 일하던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복지관을 지켜달라는 당부를 전하셨어요. 저도 평생 그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2년 3월 31일 개관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가난한 달동네에 지어진 서민들을 위한 이용시설이 되었다. "지금이야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동네가 많이 정비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골목에 두 사람이 마주 지나가기도 힘들 만큼 길이 구불구불했어요. 복지가 진정 어려운 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복지관이 세워져야 할 곳도 이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스님은 이후부터 △성북구 소년소녀가장 50명 '희망체합' (미국 서부 여행)사업 △'무한도전 I Can Do' (저소득청소년 미래를 향한 유럽연수) 사업 △아동방과후 교실 개원 △길음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 △발달장애 아동 사업 △스키푸드뱅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해 왔다.

스님의 복지포교 간간이 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탄생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스님이 조계종 사회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불교가 대사회적인 일을 해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복지관 건립을 발원한다. "신앙만 내세우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잖아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불교 포교가 너무 취약한 상태였어요. 이미 기독교나 천주교는 복지시설을 확립해 복지포교의 기반을 잘 다져 놓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복지를 통해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토지는 구청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지만 건물 건립비용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총무원장 스님을 찾아기봐도 그때의 조계종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후원자를 찾아다녔지요. 당시 코오롱 쪽에 지인이 있어 회장님을 뵈고자 했죠. 하지만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6개월 만에 겨우 회장님과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이들이 노인입니다. 이들이 갈 곳이 있다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기적의 30분, 복지의 씨앗이 되다
당시 코오롱의 이동찬 회장(현 명예회장)은 복지관 건립 제안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6개월 만에 성사된 만남이었지만 이 회장은 처음부터 건립을 허락하고자 나왔다가보다는 한번 만나만 달라는 스님의 간절한 청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나왔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이었어요. 20분 정도는 회장님 개인의 일을 얘기하느라 지나갔죠. 그러다보니 저에게는 나머지 10분이 주어진 셈이었죠. 당시 회장님께서 성북구에 사셨는데 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던 길음동이 성북구잖아요. 동네를 위해 좋은 일을 해달라며 회장님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설득했죠."
계속 기업이 어렵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에는 회장님께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이견 안되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 행복학자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생각을 했어요. 'NO라고 얘기하는 것은 YES의 전주곡'이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그때부터 열의를 했지요. 자나 깨나 복지관 건립을 발원하며 이 회장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 일이 무산되면 복지 쪽 일은 인연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중단에 가서 일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나자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이 복지관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거예요."
1991년 극적으로 복지관 건립 후원이 성사 된 것이

요?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교양강좌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등의 건강강좌는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 꿈나무건강지원단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은행의 지원으로 한때도 비행기를 못 타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했죠."
스님이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는 바로 청소년 복지다.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어 그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 사업이 바로 소년소녀가장 50명을 위한 '희망체합' (미국 서부 여행)사업이다. "2003년 후원을 받아 50명의 청소년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비버리힐스, 디즈니랜드, 스탠포드대학,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돌면서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죠. 또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리운, 당시 LA갤럭시에서 뛰고 있던 흥명보 선수 등을 만날 기회도 마련했어요."
스님은 유머든 감동든 하나의 이벤트가 아이들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상했던 이야기나 행동은 감동을 주지도 웃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던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여행을 하고 또 교민들이 전담해준 장학금을 받으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 중에는 명문대에 입학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스님의 원력은 계속 이어져 저소득청소년을 위



제원 스님은 코오롱의 이동찬 회장의 후원으로 1992년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다. 사진은 개관식에서 서로 합장을 하고 있는 이동찬 코오롱 회장(사진 왼쪽)과 제원 스님.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밀상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으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적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편) 8c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 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물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이주대 오홍규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라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를 83.6% ▶ 녹농균 감소를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비천지오 판매 비취)
 - B비취 : 원석에 착색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